

## 『황제택경(黃帝宅經)』의 문헌적 연구

장 성 규

(공주대 지리정보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 풍수지리, 황제택경, 양택, 문헌, 판본

## 1. 서론

『황제택경』은 양택풍수지리학의 초기 경전으로 『사고전서(四庫全書)』<sup>1)</sup>의 풍수지리서적 가운데 첫 번째로 수록될 만큼 그 권위를 인정받아 왔다. 사고전서의 편찬자 기운(紀昀) 등은 『황제택경』을 술수의 책 중에서는 가장 오래 전에 나온 것<sup>2)</sup>으로 기록하고 있다. 『황제택경』은 중국에서 일반적인 주택은 물론 고대 왕조의 수도와 궁궐 등의 건축물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경전 중의 하나이다.

『황제택경』은 주택의 ‘가상(家相)’<sup>3)</sup>을 판단한 것인데 방향(方向)과 길일(吉日)을 중시하는 양택관을 계승하고 심화시킨 것이다. 아울러 주택의 음택(陰宅)과 양택(陽宅)을 형화

방(刑禍方)과 복덕방(福德方)으로 이분하고, 그 수리와 축조에는 천도(天道)에 의거하여 천덕(天德)·월덕(月德)<sup>4)</sup>의 생기(生氣)가 임하는

4) 천덕(天德)이라는 것은 365도 25분반의 주천(周天)에서, 12궁(地支 12宮)의 분야(分野)를 지나는 것을 말하는데, 매 궁마다 각각 30도를 점유하니 모두 360도가 된다. 그 밖의 5도 25분 반은 12개의 좌궁(佐宮)인 甲庚, 丙壬, 乙辛, 丁癸, 乾坤艮巽에 산재해 있고, 그것을 신이 수장되어 제반 살이 없어지는 것(神藏煞沒)이라고 한다. 매 좌궁은 각각 44분을 얻기 때문에, 자오묘유(子午卯酉)에는 감경병임(甲庚丙壬)이 있고, 진술축미(辰戌丑未)에는 을신정계(乙辛丁癸)가 있으며, 인신사해(寅申巳亥)에는 건곤간손(乾坤艮巽)이 있다. 이 12좌궁은 능히 흥화를 돌이켜 복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천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월덕(月德)이라는 것은 삼합(三合)이 조림(照臨)하는 방위이고 해와 달이 회합(會合)하는 지지(地支)이다. 신자진(3월, 7월, 11월)에는 유방에서 모여 경방으로 나가고 임방에서 원으로 들어간다. 해묘미(10월, 2월, 6월)에는 오방에서 모여 병방으로 나가고 갑방에서 원으로 들어간다. 인오술(정월, 5월, 9월)에는 묘방에서 모여 갑방으로 나가고 병방에서 원으로 들어간다. 사유축(4월, 8월, 12월)에는 자방에서 모여 임방으로 나가고 경방에서 원으로 들어간다. 그러므로 감경병임을 일러 월덕이라 하며, 진술축미의 네 달에는 천덕이 함께 속해 있다. 해와 달이 조림하는 궁은 제반 천요(天曜)와 지살(地煞)이 모두 제압되기 때문에 흥화를 돌이켜 길하게 할 수 있다.

『호중자』에서 이르기를 “천덕은 양의 덕이다. 1월은 건괘(乾卦) 앞의 지지(地支), 즉 해방으로부터 일어나 순행(順行)하니, 1월은 해, 2월은 자, 3월은 축, 4월은 인, 5월은 묘, 6월은 진, 7월은 사, 8월은 오, 9월은 미, 10월은 신, 11월은 유, 12월은 술이다. 월덕은 음의 덕인데, 1월을 곤괘(坤卦) 뒤의 지지, 즉 미로부터 순행하니, 1월은 미, 2월은 신, 3월은 유, 4월은 술, 5월은 해, 6월은 자, 7월은 축, 8월은 인, 9월은 묘, 10월은 진, 11월은 사, 12월은 오이다”라고 하였다. 오성(五星)으로 천월덕

1) 청나라 건륭제의 명에 의해 1781년에 편찬된 총서이다. 총 7별이 필사되었으며 그것들은 각각 7곳에 나누어 보관되었다. 수록된 책은 3,458종, 7만 9582권에 이르렀으며, 경(經)·사(史)·자(子)·집(集)의 4부로 분류 편집되었다.

2) 『宅經』提要: “宋史藝文志五行類有相宅經一卷, 疑卽此書, 在術數之中猶最爲近古者矣.”

【清】紀昀等纂, 『宅經』(『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808冊),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2頁, 1986.

3) 지세(地勢), 가옥의 방향이나 위치, 구조 등에 의하여 길흉(吉凶)을 판단하는 풍수지리법.

특정한 날을 길일로 제시하고 있다. 즉, 『황제택경』의 전체적인 내용은 음양의 기(氣)에 대한 이론을 바탕으로 양택을 24로(路)의 방향<sup>5)</sup>으로 구분하고, 길흉신살론을 통해 양택 축조와 수리에 따른 일정한 규칙과 길일을 설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상권은 『택경』의 이론을 간결하게 서술한 내용으로서 그 원리를 중시하였다. 하권은 24방위에 따라 양택과 음택의 길흉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설명으로서 방위에 따라 각각 적용해야 할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상권과 하권은 체제상에서도 다르고 문헌의 인증방식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상권에서는 주로 문장을 인용한 책의 원제목<sup>6)</sup>을 기

을 논하는 것은 나중의 설명이고, 이전에 천월덕귀인(天月德貴人)은 간지(干支)로 구분하였다.

『三命通會·論天月德』：“天德者，謂周天有三百六十五度二十五分半，除十二宮分野，每宮各占三十度，共計三百六十度，外有五度二十五分半，散在十二佐宮。甲庚，丙壬，乙辛，丁癸，乾坤艮巽謂之神藏煞沒。每宮各得四十四分，所以子午卯酉中有甲庚丙壬，辰戌丑未中有乙辛丁癸，寅申巳亥中有乾坤艮巽，此十二位宮，能回凶作善，乃曰天德也。月德者，乃三合所照之方，日月會合之辰。申子辰會酉出庚入垣於壬，亥卯未會午出丙入垣於甲，寅午戌會卯出甲入垣於丙，巳酉丑會子出壬入垣於庚，故壬甲丙庚謂之月德，而辰未戌丑四月天德，亦同屬焉。蓋日月照臨之宮，凡天曜地煞，盡可制服，故可回凶作吉。『壺中子』云：‘天德陽之德。正月起自乾卦之前一辰，亥上順行，乃正月亥，二月子，三月丑，四月寅，五月卯，六月辰，七月巳，八月午，九月未，十月申，十一月酉，十二月戌。’月德陰之德。正月起自坤卦之後一辰，未上順行，乃正月未，二月申，三月酉，四月戌，五月亥，六月子，七月丑，八月寅，九月卯，十月辰，十一月巳，十二月午。五星論天月德，本後說，而以前爲天月德貴人，干支之分也。”

謝路軍主編，鄭同點校，『四庫全書 術數 三命通會』(初集三)，華齡出版社，北京，105頁，2006.

5) 집을 증축하는데 방향을 고려한 것은 이미 한나라 때의 기록에도 나온다.

노나라 애공이 집의 서쪽을 증축하고자 하였다. 사관은 그것을 만류하며 서쪽을 증축하는 것은 상서롭지 않다고 하였다. 애공이 안색을 바꾸고 화를 내며, 좌우의 신하들이 간언했지만 듣지 않았다.

『淮南子·人間訓』：“魯哀公欲西益宅。史爭之，以爲西益宅不祥。哀公作色而怒，左右數諫不聽。”

〔漢〕劉安 輯，高誘 注，『淮南子』，世界書局，臺北，322-323頁，1985.

록하였다. 그런데 하권에서는 문장을 인용하면서 모두 ‘경운(經云)’또는 ‘경왈(經曰)’등의 방식으로 통일되어 있다.

『황제택경』에는 중국의 건축 방식과 주택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포함되어 있다. 왜냐하면 『황제택경』은 사람들이 거주 환경을 선택하고 그 결과에 따른 길흉을 정리하여 축적해 놓은 결정체이므로 사람과 주택의 밀접한 상호 영향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황제택경』의 본문은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된다.

무릇 집이라는 것이, 바로 음양의 기본 이자 인륜의 규범임은, 사물에 박식하고 밝은 현자가 아니어도 능히 이러한 법도를 깨우칠 수 있다<sup>7)</sup>. 이 다섯 종류(五種)<sup>8)</sup>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오직 택법(宅法)이 있으니, 참으로 오묘한 술법이다.<sup>9)</sup>

위의 설명대로 집이란 사람이 생을 영위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거처를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현자이든 아니든 현실에서 이

6) 예를 들면 역결운(易訣云), 택통운(宅統云) 등 서명(書名) 뒤에 운(云)자를 붙이고 있다.

7) 『택경』의 다른 판본들은 ‘而能’이 ‘未能’ 혹은 ‘无能’으로 되어 있어, ‘사물에 박식하고 밝은 현자가 아니면 능히 이러한 법도를 깨우칠 수 없다’는 의미를 전하고 있다. 반면 사고전서본(약칭 사고본)은 ‘而能’으로 되어 있어 반대의 의미를 전하고 있는데, 진위여부가 불분명하여 일단 사고본의 내용에 따른다.

8) 『황제택경』과 내용이 대동소이한 동황본을 보면, 점택(占宅), 점장(占葬), 점복(占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점택의 바로 앞부분에는 점명(占命)의 내용(천합, 수명의 장단, 일대의 성쇠, 백년의 영육)이 있다. 이것과 더불어 술수의 기본이 천문(占星)과 역보(曆譜)임을 볼 때, 위의 오종은 점성, 점명, 점택, 점장, 점복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의 오종을 오술로 보고, 명복상산의(命卜相山醫)의 다섯 가지로 보는 견해(妙摩慧度 編著, 『地理葬課擇日全書』, 中國文聯出版社, 1995)도 있다.

9) 앞의 책, 『宅經』, 2頁: “夫宅者，乃是陰陽之樞紐，人倫之軌模，非夫博物明賢，而能悟斯道也。

就此五種，其最要者唯有宅法，而眞秘術。”

리한 방법을 적용해 나간다. 그런데 『황제택경』에서는 사람들이 삶을 영위해나가는 주요한 핵심요소를 5가지로 들면서 그 중에서도 택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택법을 통해 주택의 모범적인 답안을 제시하고 있다.

집의 형세는 사람의 신체와 같고, 물은 사람의 혈액과 같으며, 땅은 사람의 피부와 근육과 같고, 초목은 모발과 같으며 집 건물은 의복과 같고, 집으로 드나드는 문은 의관의 띠와 같다. 만약 이와 같은 형세를 얻으면, 일마다 의젓하고 고상해지니, 이야말로 가장 길한 것이다.<sup>10)</sup>

이 부분은 주택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집을 둘러싼 지형 등의 자연 환경과 조화되는 입지를 설명하고 있다.

『황제택경』은 양택 풍수지리 이론에 입각한 주택의 축조와 수리에 대해 가장 일반적이며 오랜 이론을 담고 있다. 따라서 『황제택경』에 대한 연구는 동양의 고대 건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 2. 『황제택경』 관련 기록과 연구

진한(秦漢)시대부터 형성된 풍수지리학은 경험과학적인 발전을 기초로 음양오행학설 등 동양의 제이론의 영향을 받아 보다 성숙되었다. 당송(唐宋)시대에는 완정(完整)하고 엄밀한 이론체계와 복잡한 방법이 형성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황제택경』으로서 『황제택경』 안에는 이기론과 선택론<sup>11)</sup>의 요소가

자연스럽게 혼재되어 있다.<sup>12)</sup>

이기론은 주택을 마당에서 4면으로 나누고 8천간과 12지지 및 팔괘 가운데 건곤간손의 총 24로를 긋고 길흉을 판단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선택론은 양택을 축조할

연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기론은 길한 형세를 가진 혈처(穴處)에서 천문(星宿)와 방위(方位)의 관계, 용맥(龍脈)과 수세(水勢)의 방향성을 주로 판단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통적인 음양오행이나 『주역』 이론 등이 포함된다. 선택론은 음택은 물론 양택의 구성에 있어서도 중시되었던 시일(時日)의 길흉 관계를 가리는 작업을 말한다. 상대(尙代) 갑골문에는 주택이나 궁실을 짓기 위한 길지와 길시(吉時)를 묻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춘추시대에는 장일(葬日)을 점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다. 形氣論은 形勢論·形法論·巒頭·巒體·江西風水·贛派風水·形家 등으로 불리고, 주요경전은 『청오경』·『장서』·『감룡경』 등이 있다. 理氣論은 理法論·宗廟之法·方位·卦義·福建風水·閩派風水·法家 등으로 불리고, 주요경전은 『평사옥척경』·『지리직지원진』·『지리오결』 등이 있으며 나침반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選擇論은 擇吉·擇日·擇時·克擇·造命·日家 등으로 불리고, 주요경전은 『선택정중』·『선택구진』·『천기대요』·『협기변방서』·『협길통의』 등이 있다. 전통적으로 풍수지리학은 이러한 3가의 방법론으로 전승되어 내려왔다. 3가의 이론 가운데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선택론이고, 형기론과 이기론의 순서로 발생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3가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각각을 완전히 독립된 이론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가지 이상의 이론이 섞여있는 경우가 많은데, 『황제택경』도 선택론과 이기론이 혼용되어 상당히 복잡하다. 풍수지리학을 3가의 방법론으로 처음 분류한 사람은 명초(明初)의 유백은(劉伯溫:1311-1375)이다. 그는 명태조 주원장의 국사(國師)로 『지리사탄자(地理四彈子)』를 지었는데, 그중 『금탄자(金彈子)』에서 풍수지리의 내용을 만두심법(巒頭心法)·천성심법(天星心法)·선택심법(選擇心法)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청대 조구봉(趙九峰)은 『지리오결(地理五訣)』 서문에서 풍수지리학이 전통적으로 형가(形家)·법가(法家)·일가(日家)의 3가로 대별된다고 설명하였다. 청대 장종성(蔣宗誠)은 『지리정종(地理正宗)』에서 풍수지리의 내용을 만두(巒頭)와 이기(理氣), 그리고 선택(選擇)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현대 대만의 당정일(唐正一)도 그의 저서 『풍수적연구(風水的研究)』에서 형기(形氣)·이기(理氣)와 함께 선택(選擇)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12) 그것은 양택의 입지로 선정되는 곳은 형기론으로 어느 정도 갖춰진 곳이기 때문에 이기론과 선택론을 중심으로 판단해도 충분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또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양택은 주로 넓은 지역 가운데 일정한 작은 부분만을 취하게 되므로 형기론보다는 이기론이나 선택론으로 그 가상을 판별하기가 더 용이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10) 위의 책, 『宅經』, 5頁: “宅以形勢爲身體, 以泉水爲血脈, 以土地爲皮肉, 以草木爲毛髮, 以舍屋爲衣服, 以門戶爲冠帶. 若得如斯, 是事儼雅, 乃爲上吉.”

11) 풍수지리학의 방법론을 크게 나누면 형기론(形氣論), 이기론(理氣論), 선택론(選擇論)의 3가(家)로 분류할 수 있다. 형기론은 산천의 형세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

때, 음양오행의 기와 사령관에 입각하여 특정한 날의 선택을 중시한 것에서 나타나고 있다.<sup>13)</sup> 또, ‘형세를 논하는 것은 양택법의 체(體)이고, 길일을 논하는 것은 양택법의 용(用)이다.’<sup>14)</sup>라는 인식에서 선택론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확인할 수 있다.

『황제택경』은 당대(唐代)에 이르러 기존의 택경이론을 종합시킨 결과로 볼 수 있는데, 당대중 당시 기록인 『구당서·여재전』에 『택경』이 언급<sup>15)</sup>된 이후에는 청대(清代)까지 이에 대한 언급이나 자료를 찾기 힘들다. 『구당서·여재전』에 실린 내용을 보면 여재(呂才)<sup>16)</sup>는 당대중의 명을 받들어 음양서와

13) 앞의 책, 『宅經』, 8-9頁: “凡修建垣墻, 建造宅宇, 土氣所冲之方, 人家卽有災殃, 宜依法禳之. 正月土氣冲于未方, 二月坤, 三月壬亥, 四月辛戌, 五月乾, 六月寅甲……亥爲朱雀, 龍頭父命座, 犯者害命坐人……寅爲天刑, 龍背, 玄武, 庶養子婦, 長女命坐.”

14) 王其亨 主編, 『風水理論研究』, 天津大學出版社, 天津, 83頁, 2004: “論形勢者, 陽宅之體. 論選擇者 陽宅之用.”

15) 『구당서』 『여재전』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呂才는) 『宅經』에 대해 말하기를, “『역경』에서 이르기를, ‘상고시기에는 동굴에서 살고 들판에서 거처하였으나 후세에 성인이 그것을 바꿔 궁실을 지었으니, 이는 대장괘(大壯卦)를 취한 것이다. 은·주 교체기에도 복택(卜宅)의 글이 있었다. 그래서 『시경』에서는 ‘음지와 양지를 관찰한다.’라고 하였고 『서경』에서는 ‘낙읍(洛邑)이 마땅한지를 점쳤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양택의 길흉을 점치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는 것이다. 근래의 무사(巫師)들은 계다가 오성설(五姓說)을 덧붙이는데, 오성(五姓)이라는 것은 궁·상·각·치·우등을 말하며, 천하의 만물을 모두 그것에 배속시키고 행사의 길흉을 그것에 의거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이와 같은 것은 옛 전고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 뜻과 이치가 어긋나고 편벽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舊唐書』列傳 卷七十九 列傳第二十九 呂才: “其敍宅經曰, 易曰, 上古穴居而野處, 後世聖人易以宮室, 蓋取諸大壯. 迨于殷周之際, 乃有卜宅之文, 故詩稱, 相其陰陽. 書云, 卜惟洛食. 此則卜宅吉凶, 其來尚矣. 至於近代師巫, 更加五姓之說. 言五姓者, 謂宮商角徵羽等, 天下萬物, 悉配屬之, 行事吉凶, 依此爲法. ……此則事不稽古, 義理乖僻者也.”

[後晉] 劉昫 等撰, 『舊唐書』, 中華書局, 上海, 2720-2721頁, 1975.

16) 여재(606-665)는 박주(博州) 청평(淸平)사람으로 당대(唐代)의 철학자이자 자연과학자였다. 그는 『육경(六

풍수지리서를 정리했다고 한다.<sup>17)</sup> 이때 많은 책들이 정리되거나 폐기되었는데, 풍수경전인 『청오경』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sup>18)</sup> 지금 전하는 『황제택경』의 판본에 남아있는 많은 『택경』들이 이때 여재에 의해 정리되어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통 사서인 『25사』에 『택경(宅經)』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수대(隋代)의 소길(蕭吉)<sup>19)</sup>에 관한 기록이 처음이다. 『북사·소길전』에는 『택경팔권(宅經八卷)』이 기록되어 있고<sup>20)</sup> 『수서·소길전』에

『택경』과 천문, 지리, 의약, 군사, 역사, 철학에서부터 음양오행, 구시점(龜鑿占), 역산(曆算), 괘상(卦象) 등의 광범위한 부분에 걸쳐 흥미가 있었다. 당대중 때인 30세에 홍문관에 들어가 태상박사(太常博士), 태상승(太常丞), 태자사경대부(太子司更大夫)를 역임하였다. 그는 관(官)이 주도한 도서의 편집, 수정 등에 참여하였는데, 음악, 천문, 지리, 군사, 역사, 불학, 의약, 역수(曆數)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17) 당 태종은 당시에 음양서가 점차 와전되고 그 폐단이 심해져서 역지 해석과 쓸데없는 금기가 많아졌다고 생각하여, 여재와 십여 명의 학자들에게 친박한 내용을 없애고 낱길 것만 남겨 바르게 간행하라고 명하였다. 여재는 명에 따라 15년에 걸쳐 53권을 만들고 옛 책 47권을 합하여 시행토록 반포하였다. 그는 주로 전고(典故)를 통해 그 이치를 바로잡았는데 술자들의 단견(短見)이라도 경전의 뜻과 제법 합치하면 간략하게 기록한 것이 여러 편이다.

『舊唐書』列傳 卷七十九 列傳第二十九 呂才: “太宗以陰陽書近代以來漸致訛僞, 穿鑿既甚, 拘忌亦多, 遂命才與學者十餘人共加刊正, 削其淺俗, 存其可用者. 勒成五十三卷, 并舊書四十七卷, 十五年書成, 詔頒行之. 才多以典故質正其理, 雖爲術者所短, 然頗合經義, 今略載其數篇.”

앞의 책, 『舊唐書』, 2720頁.

18) 졸고 「『청오경』의 문헌적 연구」(『건축역사연구』 제18권 2호, 32쪽, 2009) 참조.

19) 소길은 수(隋)나라 사람으로 자는 문휴(文休)이고 남관릉(지금의 강소성 무진)사람이다. 소길의 조부는 양무제의 형이자 장사(長沙) 선무왕(宣武王)인 소의(蕭懿)이다. 그는 박학다식하였고, 특히 음양학과 산술학에 정통하였다. 북주(北周)에서 의동(儀同)이라는 높은 벼슬을 지냈고, 수나라 양제(煬帝) 때는 태부소경(太府少卿)이 되었다. 저서로는 『택경』, 『장경(葬經)』, 『상경요록(相經要錄)』, 『오행대의(五行大義)』, 『태일입성(太一立成)』 등이 있다. 『수서·경적지』, 『구당서·경적지』, 『신당서·예문지』, 『송사·예문지』 등에 소길과 『오행대의』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도 소길의 『택경팔권(宅經八卷)』이 기록되어 있다.<sup>21)</sup> 또 『수서·경적지』에는 『택길홍론(宅吉凶論)』 3권과 『상택도(相宅圖)』 8권이 있고<sup>22)</sup> 『구당서·경적지』에는 『오성택경(五姓宅經)』 2권이 있으며<sup>23)</sup> 『신당서·예문지』에는 『오성택경(五姓宅經)』 20권이 있다.<sup>24)</sup> 이 사실로 판단하면 수대의 소길이 『택경(宅經)』을 저술하였고 『오성택경』은 이미 20권이나 저술되어 양택풍수지리학 이론서가 등장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재가 다양한 종류의 택경을 모아서 취합하고 2권의 텍스트로 정리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황제택경』은 통합 되고 정리되는 과정을 겪었지만 여재가 모든 서적을 통제하고 정리한 것은 아니며 민간에는 다양한 풍수관련 서적이 유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당나라 이후의 기록에도 다양한 양택서

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황제택경』도 그렇지만 『청오경』, 『장서』, 『호수경』 등이 성립 연대가 대체로 당대인 점도 풍수지리 이론이 당대에 확산된 이유의 하나이다. 또, 당나라 황실의 국사(國師)였던 양균송(楊筠松)은 황소(黃巢)의 난이 일어나자 황실에 비장(秘藏)되어 오던 풍수경전들을 가지고 강서성(江西省)으로 가서 많은 제자를 길러냈다. 그 결과 궁중에서 소수자에 계만 전해지던 풍수지리법이 민간에 확산되고 대중화되었다. 송대에 이르면 문화와 인쇄술의 발전으로 풍수서적들이 대량으로 출판되어 확산에 촉매 역할을 하였다.

송대와 관련된 기록인 『송사·예문지』에는 『상택경(相宅經)』·『택체일작수경(宅體一作髓經)』·『음양이택가(陰陽二宅歌)』·『이택상점(二宅相占)』·『오음삼원택경(五音三元宅經)』·『음양택경(陰陽宅經)』·『음양택경도(陰陽宅經圖)』·『음양이택도경(陰陽二宅圖經)』·『황제팔택경(黃帝八宅經)』·『회남왕견기팔택경(淮南王見機八宅經)』·『왕정음양이택집요(王澄陰陽二宅集要)』·『황석공팔택(黃石公八宅)』 등이 있다.<sup>25)</sup> 이것은 당대에서 발전하기 시작한 풍수지리가 송대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매우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다. 송대에는 저명한 유학자인 채원정, 주희 등도 풍수지리설을 인정하고 연구하였다. 특히 채원정은 20편으로 전해오던 『장서』를 줄여서 8편으로 만들었고 주희는 산릉의장(山陵議狀)<sup>26)</sup>을 지어 올린

20) 『北史』 卷八十九 列傳第七十七 藝術上 蕭吉: “後歲餘卒官. 著金海三十卷, 相經要錄一卷, 宅經八卷, 葬經六卷, 樂譜二十卷, 及帝王養生方二卷, 相手版要訣一卷, 太一立成一卷, 並行於時.”

[唐] 李延壽撰, 『北史』, 中華書局, 北京, 2955頁, 1974.

21) 『隋書』 卷七十八 列傳第四十三 藝術 蕭吉: “帝問其故, 吉曰, 其候素家當有兵禍, 滅門之象. 改葬者, 庶可免乎! 帝後從容謂楊玄感曰, 公家宜早改葬. 玄感亦微知其故, 以爲吉祥, 託以遼東未滅, 不遑私門之事. 未幾而玄感以反族滅, 帝彌信之. 後歲餘, 卒官. 著金海三十卷, 相經要錄一卷, 宅經八卷, 葬經六卷, 樂譜二十卷及帝王養生方二卷, 相手版要訣一卷, 太一立成一卷, 並行於世.”

[唐] 魏徵等撰, 『隋書』, 中華書局, 北京, 1777頁, 1982.

22) 『隋書』 卷三十四 志 第二十九 經籍三: “宅吉凶論三卷. 相宅圖八卷.”

[唐] 魏徵等撰, 『隋書』, 中華書局, 北京, 1039頁, 1982.

23) 『舊唐書』 卷四十七 志第二十七 經籍下 丙部子錄五行類: “五行記五卷蕭吉撰. 五姓宅經二卷. 陰陽書五十卷呂才撰. 青烏子三卷. 葬經八卷.”

[後晉] 劉昫等撰, 『舊唐書』, 中華書局, 北京, 2044頁, 1975.

24) 『新唐書』 卷五十九 志第四十九 藝文三 丙部子錄五行類: “蕭吉五行記五卷. 又五姓宅經二十卷. 葬經二卷. 王 璨新撰陰陽書三十卷. 青烏子三卷. 葬經八卷.”

[宋] 歐陽修 宋祁 撰, 『新唐書』, 中華書局, 北京, 1556頁, 1975.

25) 『宋史』 卷二百六 志第一百五十九 藝文五 子類 五行類, 5240頁: “相宅經一卷. 宅體一作髓經一卷. 陰陽二宅歌一卷. 二宅相占一卷.”

5253頁: “五音三元宅經三卷. 陰陽宅經一卷. 陰陽宅經圖一卷. 陰陽二宅圖經一卷. 黃帝八宅經一卷. 淮南王見機八宅經一卷.”

5258頁: “王澄陰陽二宅集要二卷. 黃石公八宅二卷.”

[元] 脫脫等撰, 『宋史』, 中華書局, 北京, 5240頁, 5253頁, 5258頁, 1977.

사실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다.

청대(清代)에 이르러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sup>27)</sup>에서 『송사·예문지』의 『상택경(相宅經)』을 『황제택경』으로 본 언급이 나온다.<sup>28)</sup> 이것이 여제 이후 『황제택경』에 대한 공식적인 첫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청대의 학자 주중부(周中孚)<sup>29)</sup>는 『정당독서기(鄭堂讀書記)』<sup>30)</sup>에서, 『송사·예문지』를 근거로 『황제택경』은 『상택경』 1권과 『택체경(宅體經)』 1권을 합친 것이라고 보았다. 이 관점은 『사고전서총목제요』의 견해를 답습한 것으로 『황제택경』을 송대의 저술로 보는 것이다. 또 담정헌(譚廷獻)<sup>31)</sup>과 호옥진

26) 송나라 황제였던 효종이 죽은 뒤 6년이 지나도록 장지(葬地)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자가 황제인 영종(寧宗)에게 그와 관련된 자신의 풍수지리적 견해를 올린 글이다.

27) 『사고전서총목제요』는 청나라 건륭제 47년(1782)에 기윤이 황제의 명에 따라 엮은 책으로 『사고전서』의 총목목을 기록하고 각 서적의 이름 밑에 그 대요(大要)를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28) 『四庫全書總目提要』卷一百九 子部十九 術數類二: “宋史藝文志五行類, 有相宅經一卷, 疑卽此書.” [清] 紀昀 總纂, 『四庫全書總目提要(全四冊)』, 河北人民出版社, 石家莊, 2776頁, 2000.

29) 주중부(周中孚:1768-1831)는 자가 신지(信之) 또는 정당(鄭堂)이며, 오경(烏程)사람이다. 청나라 가경(嘉慶) 6년(1801)에 선발되어 고경정사(誥經精舍)로 들어갔으며, 『경적찬고(經籍纂詁)』를 편집하는데 참여하였다. 그는 과거를 포기한 채 상해에 머물면서, 『자운루장서지(慈雲樓藏書志)』를 편찬하고, 별도로 부분(副本)을 기록하여 『정당독서기(鄭堂讀書記)』를 지었다. 저서에는 『고경집해(考經集解)』, 『일주서주보정(逸周書注補正)』, 『고직방년보(顧職方年譜)』, 『자서고(子書考)』, 『금석식소록(金石識小錄)』, 『정당차기(鄭堂筴記)』 등이 있다.

30) 『정당독서기(鄭堂讀書記)』는 청대의 저명한 학자인 주중부가 찬술한 대형 도서목록서이다. 체제는 『사고전서총목제요』를 모방하여 경·사·자·집 4부로 구분하였고 저작의 명칭, 작자, 내용, 개요, 판별(版別) 등을 열거하였는데, 모두 71권이다. 책에서는 선진(先秦)시기부터 청나라 도광(道光)까지의 저술을 모두 수록하였는데 4000여 종이다.

31) 담정헌(譚廷獻:1832-1901)은 자는 중수(仲修)이고, 건축역사연구 제18권 6호 통권67호 2009년 12월

(胡玉縉)<sup>32)</sup>은 『황제택경』의 저술 년대를 당대로 보았다.<sup>33)</sup> 즉 청대의 학자들은 『황제택경』의 저술시기를 당대 혹은 송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보다 조금 더 시기를 소급하여 시기를 추정하는 것은 현대의 조셉 니덤<sup>34)</sup>이다. 그는 『중국과학기술사(中國科學技術史)』<sup>35)</sup>에서 전국시대(戰國時代)의 저리자(梲裏子)<sup>36)</sup>, 진대(秦

호는 복당(夏堂)이며 절강(浙江) 항주(杭州)사람이다. 그는 시사에 두루 능했으며 경전을 해석하는데 있어서 한나라 유학자의 뜻을 구하고 자구에 얽매이지 않았다. 안휘(安徽), 전초(全椒), 합비(合肥), 숙송(宿松) 등 여러 현의 관리를 지냈다.

32) 호옥진(胡玉縉:1859-1940)은 근·현대의 문학이이자 학자이다. 자는 수지(綬之)로 소주(蘇州)사람이다. 어릴 때 정의서원(正誼書院)에서 수업하였고 1906년에는 승원외랑(升員外郎)이 되었다. 1908년 예학관관수(禮學館纂修)를 맡았고 북경대학과 북경고등사범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저서에 『사고전서총목제요보정(四庫全書總目提要補正)』 60권, 『사고미수서목제요보정(四庫未收書目提要補正)』 2권 및 『설문구음보주(說文舊音補注)』 등이 있다.

33) 馮靜, 「『黃帝宅經』考」, 杭州, 浙江大學 碩士學位論文, 2頁, 2004: 胡玉縉在『四庫全書總目提要補正』書中引用譚廷獻的說法, 把宅經的成書年代定於唐代. 考書中稱『黃帝二宅經』及『淮南子』, 李淳風, 呂才等宅經二十有九種, 則作書之時, 本不僞稱黃帝. 譚廷獻『複堂日記·五』云: “中有避唐諱及‘位至台省, 高道齊人’云云, 蓋唐人書.”

34) 조셉 니덤(Joseph Needham, 1900-1995)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교수이자 박물학자, 과학사학자이다. 그의 저서 『中國科學技術史』는 비교철학과 중국학에서 중요한 저서로 여겨진다. 중국에서는 이약슬(李約瑟)로 불린다.

35) 영국의 과학사가인 조셉 니덤이 지은 중국과학사 연구서로 1954년 영국에서 제1권이 출판된 이래 현재까지 모두 6권이 출판되었다. 이 책에서 서양의 근대과학이 分析的·機械論的·決定論的인 데 비해 중국의 전통과학은 綜合的·有機體的·非決定論的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을 하여 동양의 과학문명이 서양보다 뒤떨어졌다는 편견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36) 저리자(梲里子? -B.C 300년)의 이름은 疾(질)이고 진 혜왕(秦惠王)의 이복동생이다. 언변이 뛰어나고 지모가 출중하여 진나라 사람들이 그를 지낭(智囊)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저리자는 풍수지리에 남다른 안목이 있었는지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죽은 뒤 100년 후에 이곳에 천자의 궁궐이 들어서서 내 무덤을 둘러쌀 것이다.(後百歲, 是當有天子之宮夾我墓)” 실제로

代)의 주선도(朱仙桃), 한대(漢代)의 청오선생이 초기의 풍수지리가고, 관로(管輅)<sup>37)</sup>의 『관씨지리지몽(管氏地理指蒙)』으로 보아 풍수지리학은 삼국시대부터 체계화되기 시작했다고 보았다. 또 괘박의 『장서』와 당대 양균송의 『청낭오어』, 명대 유기(劉基)의 『감여만흥(堪輿漫興)』을 주요 풍수지리 전적으로 꼽으면서, 왕미(王微)의 『황제택경』이 현존하고 있다고 하였다.<sup>38)</sup> 즉 『황제택경』을 남조 송의 문학가였던 왕미(415-453년)<sup>39)</sup>의 저서로 보고 있는데, 그 근거는 분명히 제시하지 않았다.

### 3. 『황제택경』의 저자

『사고전서』를 비롯한 여러 판본에서 『황제택경』의 저자를 황제(黃帝)라고 하였지만, 황제시대에는 문자가 없었다. 문자가 아직 만들어지기 전에 책이 먼저 나올 수는 없는 일이다.<sup>40)</sup> 그리고 『황제택경』에서는 음양오행 사상과 방위관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양택 이론이 제시되고 있는데, 황제시기에 이와 같이 체계적인 이론이 존재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황제택

---

한(漢)나라가 세워지자, 장락궁(長樂宮)이 그의 무덤 동쪽에 서고, 미앙궁(未央宮)이 그 서쪽에 자리하고, 무기고가 무덤 바로 앞에 세워졌다고 한다.

37) 관로(210-256)는 자가 공명(公明)이고 삼국시대 위나라의 술사이며 평원군(지금의 덕주 평원현) 사람이다. 그는 역사적으로 저명한 술사로서, 후세의 괘점(卦占)과 관상을 보는 사람들에게 조사(祖師)로 숭배되었다. 관로의 저술은 매우 풍부한데, 중요한 것으로는 『주역통령결(周易通靈訣)』 2권, 『주역통령요결(周易通靈要訣)』 1권, 『파조경(破躁經)』 1권, 『점기(占筮)』 1권이 있다.

38) 李約瑟著, 何兆武等譯, 『中國科學技術史』第二卷(科學思想史),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386-388頁, 1990.

39) 왕미(王微:415-453)는 남조(南朝) 송(宋)의 문학가이다.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좋아했고 음악·의술·복서·음양수술·문장 등에 모두 능했다.

40) 李少君 編著, 『圖解黃帝宅經』, 陝西師範大學出版社, 西安, 36頁, 2008.

경』의 저자는 황제가 아니며 후대에 체계화된 양택이론서에 황제의 이름을 가탁(假託)한 것으로 보인다.

고대 문헌 가운데는 『황제내경(黃帝內經)』과 같이 황제의 이름을 빌린 것이 많은데 『황제택경』에서도 저자를 황제라고 한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음을 보이기 위해서이다.<sup>41)</sup> 즉, 『황제사경(黃帝四經)』, 『황제음부경(黃帝陰符經)』 등 황제라는 큰 이름을 빌어서 그 책의 지위를 높이고 정통성을 부각시키고자 한데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이다.

### 4. 『황제택경』의 성립연대

『황제택경』의 저술시기에 대해 『사고전서총목제요(四庫全書總目提要)』에서는 『송사·예문지(宋史·藝文志)』의 『상택경(相宅經)』을 『황제택경』으로 보고, 『택경』의 저술 연대를 송대 또는 그보다 이른 시기라고 하였다.<sup>42)</sup> 청대의 담정헌(譚廷獻)과 호옥진(胡玉縉)은 앞에서 설명한대로 『황제택경』의 저술 연대를 당대로 보았으며 현대의 조셉 니담은 남조 송대로 보았다.

그런데 『황제택경』의 내용과 여타 문헌을 보면 그 저술 시기를 당대 혹은 그 이전으로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 둔황(敦煌)지역에서 『택경』 둔황본<sup>43)</sup>이 발견되면서 『황제택

---

41) 王玉德, 『神秘的風水』, 廣西人民出版社, 南寧, 82頁, 2003.

42) 『四庫全書總目提要』卷一百九 子部十九 術數類二: “宋史藝文志五行類, 有相宅經一卷, 疑卽此書.”

〔清〕紀昀 總纂, 『四庫全書總目提要(全四冊)』, 河北人民出版社, 石家莊, 2776頁, 2000.

43) 1907년, 영국의 고고학자 마크 오렐 스타인(Marc Aurel Stein 1862-1943)은 승려 왕원록(王圓錄)이 둔황 석굴 사원에서 엄청난 분량의 고문서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1만3000종에 달하는 고문서를 비밀리에 사들여 인도로 귀환하는데 이 문서들은 대영박물관 등 세계 각지로 퍼지게 된다. 스타인이 둔황을 떠난 1년 뒤, 프랑스의 동양학자인 펠리오(P. Pelliot,

경』은 그 윤곽이 보다 뚜렷해지게 되었다. 돈황본은 완본으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빠진 문자도 적지 않지만, 사고본과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돈황본과 사고전서본(사고본)을 비교해 보면 돈황본을 통해 사고본의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는 면이 있다. 예를 들면 사고본에서는 상권의 도입부가 ‘위의 오종(五種)에서……’로 시작되어, ‘오종’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반면 돈황본의 도입부는 사고본보다 한 단락 더 추가되어 오종에 대한 부가 설명이 들어 있다. 또 상호간의 글자 비교를 통해서도 사고본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다.

돈황본이 발견된 돈황의 막고굴 장경동에는 5세기 초에서 1002년(송나라 건국 42년)까지의 문헌이 보존되어 있었다. 이것은 돈황본의 사본 년대가 1002년 이전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것과 유사한 내용의 사고본은 늦어도 만당오대(晩唐五代) 시기에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현재 남아있는 자료를 보면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양택에 관한 경전(택경)을 찬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문헌 속의 『택경』은 작자별로는 『황제택경(黃帝宅經)』 · 『문왕택경(文王宅經)』 · 『공자택경(孔子宅經)』 · 『유근택경(劉根宅經)』 · 『현녀택경(玄女宅經)』 · 『사마천사택경(司馬天師宅經)』 · 『회남자택경(淮南子宅經)』 · 『왕미택경(王

微宅經)』 · 『사마최택경(司馬最宅經)』 · 『유진평택경(劉晉平宅經)』 · 『장자호택경(張子毫宅經)』 · 『이순풍택경(李淳風宅經)』 · 『여재택경(呂才宅經)』 등이 있다.

내용별로는 『지전택경(地典宅經)』 · 『삼원택경(三元宅經)』 · 『천로택경(天老宅經)』 · 『팔괘택경(八卦宅經)』 · 『오조택경(五兆宅經)』 · 『현무택경(玄武宅經)』 · 『육십사괘택경(六十四卦宅經)』 · 『우반룡택경(右盤龍宅經)』 · 『비음복란택경(飛陰伏亂宅經)』 · 『오성택경(五姓宅經)』 · 『구궁택경(九宮宅經)』 등인데, 대부분 실전(失傳)되었다.

위의 『택경』 가운데 『오성택경』과 『삼원택경』 외에는 대부분 정사류 문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민간에서는 유전되었지만 관계(官界)에서는 통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또 『문왕택경』 · 『공자택경』 · 『유근택경』 · 『왕미택경』 · 『회남자택경』과 같이 당대 이전의 인물이나 전적을 언급한 『택경』은 당대보다 훨씬 이전 연대에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명에 인명이 포함된 『택경』을 통해 책의 저술연대를 당대로 볼 수도 있다. 사고본에 언급된 29종의 『택경』 가운데 15종은 인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유근, 사마천사, 왕미, 이순풍과 여재는 생존 시기를 알 수 있다. 유근<sup>44)</sup>은 한나라 효성황제 시에 생존한 인물이고, 왕미는 415-453년에 생존하였다. 사마천사<sup>45)</sup>는 생물연대가 647-735년인 당대(唐代)

1878-1945)가 다시 왕원록을 통해 6000종의 문헌을 가져간다. 그 후로도 돈황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중요한 문서가 계속 발견되었는데 이 문서들을 통칭하여 돈황문서라고 한다. 그 당시 돈황의 도서관 석굴(17번 석굴)에는 4만5000종의 불교 문서와 옛 관청의 서류 그리고 기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다. 그 자료들은 3세기에서 11세기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정치·경제·군사·문화·서예·건축·의학·종교 등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문서들 중에 양택과 관련된 것으로는 『택경』 돈황본(『음양택경』) · 『오성음양택경(五姓陰陽宅經)』 · 『오성택경(五姓宅經)』 · 『팔택경(八宅經)』 · 『대당신정황제택경일권(大唐新定皇帝宅經一卷)』 · 『팔택경(八宅經)』 등이 있다.

44) 유근(劉根)은 자가 군안(君安)이고 장안(長安)사람이다. 어려서 오경에 밝았다. 한나라 효성황제 수화 2년에 효렴(孝廉)으로 천거되어, 낭중(郎中)을 제수 받았다. 후에 세상을 버리고 도를 공부했다.

45) 사마천사(司馬天師:647-735)는 당대의 사마승정(司馬承禎)이다. 자는 자미(子微)이고 호는 도은(道隱)이며 하남 심양현 사람이다. 21세에 도문(道門)에 들어, 악수산에 거처했고 도교 양생술의 도술로 유명했다. 후에 명산대천을 주유하다 천태산에 은거했는데 스스로 천태백운자(天台白雲子)라 불렀고, 세상에서는 사마천사라



사람이다. 이순풍<sup>46)</sup>의 생몰연대는 대략 604-672년이고 여재는 대략 600-665년이다. 여재는 기존의 음양서를 정리하면서 다음과 같이 오성설을 비판하였다.

『역경』에서 이르기를, ‘상고시기에는 동굴에서 살고 들판에서 거처하였으나 후세에 성인이 그것을 바꿔 궁실을 지었으니, 대장괘를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은·주 교체기에는 복택(卜宅)의 글이 있어서, 『시경』에서는 ‘음지와 양지를 관찰한다.’라고 하였고 『시경』에서는 ‘낙읍의 적합성을 점쳤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양택의 길흉을 점치는 유래가 오래된 것이다. 근래의 무사(巫師)들은 궁·상·각·치·우와 같은 오성설(五姓說)을 덧붙여 천하 만물을 모두 그것에 배당하여 행사에 길흉을 가린다.……이와 같은 것은 옛 전고에서 찾아볼 수 없으니, 뜻과 이치가 어긋나고 치우친 것이다.<sup>47)</sup>

위와 같은 그의 관점과 『황제택경』에서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오성팔택』이나 『황도백방』의 사례에만 힘쓰니, 모두 기본적인 가르침을 어긋나고 범하여, 재앙과 허물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sup>48)</sup>라고 한 관점은 매우 유

하였다. 『구당서』와 『신당서』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46) 이순풍(李淳風:604-672)은 천문과 지리에 모두 능통했던 사람이고 기주 옹현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널리 세상을 주유하고 많은 책을 읽고, 천문, 역산, 음양학에 밝았다. 정관(貞觀) 초기에, 장사랑벼슬을 받았고 정관 15년에 태상박사를 제수 받았다. 『진서(晉書)』와 『오대사(五代史)』를 찬했는데, 「천문지」·「율력지」·「오행지」가 모두 그의 저술이다.

47) 『舊唐書』列傳 卷七十九 列傳第二十九 呂才: “易曰, 上古穴居而野處, 後世聖人易以宮室, 蓋取諸大壯. 迨于殷周之際, 乃有卜宅之文, 故詩稱, 相其陰陽. 書云, 卜惟洛食. 此則卜宅吉凶, 其來尚矣. 至於近代師巫, 更加五姓之說. 言五姓者, 謂宮商角徵羽等, 天下萬物, 悉配屬之. 行事吉凶, 依此爲法. ……此則事不稽古, 義理乖僻者也.”

[後晉] 劉昫 等撰, 『舊唐書』, 中華書局, 上海, 2720頁, 1975.

48) 앞의 책, 『宅經』, 3頁: “近來學者, 多攻五姓八宅, 黃

사한 면을 보인다.

유근, 사마천사, 왕미, 이순풍, 여재의 공통점은 모두 음양학에 정통했다는 점이고 그 생몰연대는 유근을 제외하고 남조 송에서 당(唐)에 걸쳐 있다. 연대가 가장 늦은 사마천사도 735년에 생을 마감했다. 『황제택경』의 출현은 마땅히 그보다 뒤일 것이므로 책이 만들어진 연대 또한 마땅히 당대 중기 이후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황제택경』의 저술연대를 송대로 본 기운의 의견을 납득하기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사고전서』에서 기운은 『황제택경』이 『송사·예문지』오행류의 『상택경』에서 나왔다고 추측했지만 『송사·예문지』가 성립된 시기는 원 순제 3년에서 5년(서기 1343-1345년), 즉 14세기말보다 이전이기 때문에 돈황본이 몇 백 년 이후의 저서인 『상택경』에서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돈황본의 내용이 『황제택경』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점,<sup>49)</sup> 둘의 내용 비교를 통해 빠지거나 잘못된 부분이 어느 정도 보완될 수 있는 점,<sup>50)</sup> 고국번(高國藩)·조건웅(趙建雄)·황정건(黃正建)·채달봉(蔡達峰) 등과 같은 학자들이 돈황본을 당대의 저술로 보고 있는 점,<sup>51)</sup> 현재 풍수지리 경전 연구의 대표적 학자인 왕옥덕<sup>52)</sup>이 『황제택경』의 저술연대를 당대로 볼 수 있다고 한 점<sup>53)</sup> 등을 통해 『황제택

道白方例, 皆違犯大經, 未免災咎.”

49) 돈황본의 원문과 교주에 대한 것은 『敦煌寫本宅經葬書校注』[(金身佳 編著, 北京, 民族出版社, 2007)]의 5-18頁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책에서는 『택경』 돈황본을 『음양택경』이라 하였다.

50) 王玉德, 『尋龍點穴』, 中國電影出版社, 北京, 215頁, 2006.

51) 앞의 논문, 「『黃帝宅經』考」, 3頁.

52) 왕옥덕은 1954년 호북성 무한(武漢)에서 출생했으며, 역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화중사범대학 역사문화학원 원장이며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대표적인 저서로 『신비적풍수(神秘的風水)』가 있다.

경』의 저술 연대는 당대로 보는 것이 무리가 없을 듯하다.

그런데 돈황본에서 ‘자손관록(子孫官祿)’, ‘광영문족(光映門族)’, ‘혼련귀척(婚連貴戚)’ 등과 같이 문벌귀족제도를 중시하는 면모는 이 책의 저술연대를 남북조시기로도 소급할 수 있게 한다. 위진남북조의 정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문벌귀족제도의 존재였기 때문이다.<sup>54)</sup>

남북조 시대의 혼란을 진정시키고 건국된 수나라 문제(文帝)는 관리 등용법인 9품중정제(九品中正制)<sup>55)</sup>를 폐지하고 시험을 보아 문벌이 낮은 사람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과거제를 중국 역사상 최초로 실시했다. 이를 통해 관리의 선발권이 문벌 세족의 손에서 중앙으로 집중될 수 있었고, 관리의 성적을 평가하여 승진에 참고하였다. 따라서 당나라 말까지는 문벌을 숭배하는 심리가 줄곧 있었고 여전히 보편적으로 존재했다. 이것으로 보면 『택경』

53) 앞의 책, 『尋龍點穴』, 215頁.

54) 위진시대는 지방의 명망가인 일류 호족이 사회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이후 남북조와 수당으로 이어지는 귀족제가 형성된 시기이다. 이들은 한대의 사대부 계통을 이은 지식인층으로서, 무장력과 재력을 겸비했을 뿐만 아니라 향리에서의 덕망을 배경으로 하여, 향리의 지도층으로 성장했다. 당시 이들 호족들은 망족(望族)이나 군망(郡望)으로 불리었는데, 망이란 우러러 본다는 뜻으로, 호족과 일반민은 이 '망'을 통해 상호 유대를 맺은 데서 비롯된 용어이다. 군망이란 후한 이래 주가 최대의 지방행정 구획이 되면서, 군은 중앙정부의 수족과 같은 행정조직이 아니라 하나의 지역사회가 성립 단위가 되었고, 그 출신 명족을 중심으로 한 자립적 세계가 형성된 데서 비롯되었다. 귀족이란 바로 이들 망족, 군망을 이르는 말이다.

55) 9품중정제는 상상(上上)에서 하하(下下)까지 9등급으로 평가 기준을 나누어 인재를 추천, 발탁하는 관리 임용제도였다. 인재 선발의 책임을 맡은 각 지역의 중정관은 현지 사정에 밝은 그 지역 출신이었고, 관할 지역 내의 인물에 대한 평판을 중시하여 인재를 추천했다. 숨은 인재를 발탁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인지도 모르지만, 중정관들이 점차 부패해 갔고, 지방 호족 출신들이 중정관을 차지하면서 호족의 자제들이 고위 관리가 되는 일이 많아졌다.

형성 시대는 늦어도 당대로 볼 수 있다.

『택경』에서는 ‘자사왕공(刺史王公)’이라고 하여 자사와 왕공을 같이 거론하였다. 이것을 고려하면 『택경』의 성립 연대에는 자사의 권력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시기는 송대 이전이다.<sup>56)</sup>

위의 내용을 통해 현존하는 『황제택경』의 저술시기는 당대로 보이지만, 『황제택경』 이전에도 다양한 양택서가 유행한 점, 현존하는 『황제택경』은 돈황본의 내용과 대동소이한 점, 위진남북조의 문벌제도를 중시한 점 등은 『황제택경』의 많은 내용이 당대 이전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황제택경』이 기존의 음양오행 이론과 방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택서의 내용을 선별하고 발전시킨 것은 전통적 사유체계를 수용하고 그것을 양택의 이론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제택경』에서는 다양한 양택서를 언급하면서 “이상의 모든 경전(29권)은 모두 대동소이하고, 모두 저마다들 오묘한 비전이라 하는데, 서로 장단점이 있다……이제 모든 비책을 가려내고, 24로를 구분하고, 팔괘와 구궁에 남여의 자리를 배속하여, 음택과 양택의 경계를 삼는다.”<sup>57)</sup>라고 하여 『황제택경』의 내용이 기존의 양택서를 취사하고 종합한 것임을 보이고 있다. 또 『황제택경』에서 『택통(宅統)』 · 『청오자(靑烏子)』 · 『자하(子夏)』 · 『택서(宅書)』 · 『수신기(搜神記)』 ·

56) 송나라 제도는 지주(知州)·지부(知府) 등을 두어, 조정의 신하에게 임무를 맡겼으므로 비록 자사(刺史)라는 관직이 있었어도 그 권력은 점차 약해졌고 유명무실했다. 소위 송대의 중앙 집권은 군권의 집중과 재정권의 집중에 있고 이를 위해 지방은 매일 궁핍해 있었다. 인사의 집중에 있어서는 이미 당대에 실시되어 졌다. 송대에는 지방이 약했기 때문에 금나라가 침입해 더욱 중앙의 수도를 잃어버리자 전국은 와해되고 금나라에 대한 항전은 더욱더 곤란하게 된다.

57) 앞의 책, 『宅經』, 3頁: “已上諸經, 其皆大同小異, 亦皆自言秘妙, 互推短長……今採諸秘驗, 分爲二十四路, 八卦九宮, 配女男之位, 宅陰陽之界.”

『삼원경(三元經)』·『호경(戶經)』 및 여타 다른 경전을 인용하여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점도 『황제택경』이 기존의 양택 이론을 정리하고 집성한 것임을 나타낸다.

이것을 통해 현존하는 『황제택경』의 편저자는 알 수 없지만, 『황제택경』의 내용은 오랜 시기를 거쳐 형성된 다양한 양택서의 이론이 보완과 정리 작업을 거쳐 시대의 흐름과 함께 전해왔음을 보여준다. 즉 주택에 대한 이론은 원시시대에 인류가 집을 짓고 살 때부터 발생했으며 보다 체계화되고 책의 형태로 정착된 것은 서한(西漢) 이후이며 남북조에서 당대에 종합되어 『황제택경』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황제택경』의 내용은 대대로 전해 온 것이며 남북조에서 당대에 종합된 후 황제의 이름을 가탁하여 『황제택경』이라 명명(命名)된 것이다. 따라서 『택경』의 저술연대는 일반적으로 남북조에서 당대로 판단할 수 있다.

## 5. 『황제택경』의 판본

현존하는 『황제택경』의 판본은 대략 8가지인데, 돈황본 1개와 통행본 7개로 나뉜다. 통행본 7개는 명대 판본과 청대 판본으로 나뉘지만 전체 내용은 대동소이한 편이다. 『택경』 돈황본<sup>58)</sup>(돈황사본 P.3865)은 20세기 초에 발굴되었고 송대 이전 문서로 추정된다. 통행본 가운데 현재 전하는 명대 판본은 아래와 같다.

- ① 정통도장본(正統道藏本) (정통10년 서기1445년)(약칭 도장본).
- ② 이문광독본(夷門廣讀本) 명 만력 중

58) 돈황본은 陳于柱의 『敦煌寫本宅經校錄研究』와 金身佳的 『敦煌寫本宅經葬書校注』 2권을 기준으로 하였다.

간본 (만력25년 서기1597년/약칭 이문본)  
 ③ 진체비서본(津逮秘書本) 명 승정 우산모씨 급고각본(汲古閣本)<sup>59)</sup> (승정3년 서기 1630년)(약칭 진체본)

청대의 판본은 다음과 같다.

- ① 설부분(說郛本)<sup>60)</sup> 위완산당 (순치3년 서기1646년)(약칭 설부분).
- ② 고금도서집성본(古今圖書集成本) (옹정4년 서기1726년)(약칭 집성본).
- ③ 문연각사고전서본(文淵閣四庫全書本) (건륭46년 서기1781년)(약칭 사고본).
- ④ 학진토원본(學津討原本) 우산장씨조 광각간 (가경10년 서기1805년)(약칭 학진본).<sup>61)</sup>

이 판본들의 제목을 비교하면 도장본·이문본·진체본·집성본에는 『황제택경』으로 되어있고, 사고본·학진본에는 『택경』으로 되어있다. 설부분은 설부분 전체의 형식을 따라 서명[宅經] 밑에 저자[黃帝]를 부기한 형태로 서 있다. 본고에서는 명대 판본에 따라 『황제택경』으로 통일하였다. 표 1은 판본의 형식을 비교한 것이다.

59) 급고각은 중국 명나라 말기에, 강소성(江蘇省)의 상숙(常熟)의 우산(虞山) 모진(毛晉)이 지은 장서관(藏書館)을 말한다. 급고각의 주인인 모진의 원명은 봉포(鳳苞), 자는 자진(子晉)이다. 그는 많은 서적의 장서처로 급고각을 설치하고, 수많은 고서를 복각하여 유포하였다. 재력이 풍부했던 모진은 서적 수집에 주력하여 급고각의 장서 수는 8만 4,000권에 이르렀다고 한다. 수집 장서의 내용은 경서(經書)·사서(史書)·제자(諸子)·문집(文集) 등의 전반에 걸쳐 있으며, 특히 송판본(宋版本)의 수장(收藏)은 당대 최고라 하였다. 장서 가운데 『십삼경주소(十三經注疏)』·『십칠사(十七史)』·『진체비서(津逮秘書)』·『문선(文選)』·『한위육조일백삼가집(漢魏六朝一百三家集)』·『송명가사(宋名家詞)』 등을 비롯한 여러 서적이 급고각본으로 출판되었다.

60) 본 연구에서는 『사고전서』에 실려 있는 설부분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清] 永裕, 紀昀 等纂, 《景印文淵閣四庫全書》(第882冊),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299-308頁,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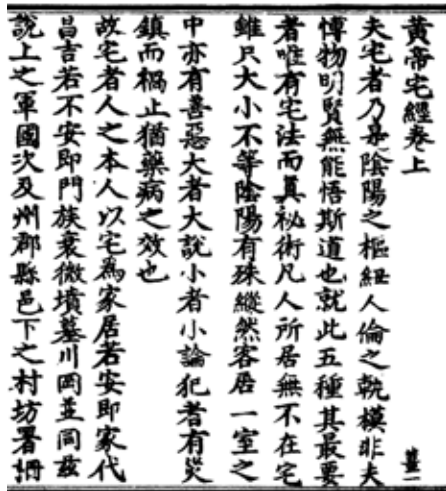
61) 陳于柱, 『敦煌寫本宅經校錄研究』, 民族出版社, 北京, 405-406頁, 2007.

[표 1] 『황제택경』 판본의 형식 비교표

	도장본	이문본	진체본	설부분	사고본	집성본	학진본
제목	황제택경	황제택경	황제택경	택경	택경	황제택경	택경
서(序) 유무	무	무	무	무	무	유	무
제요 유무	무	무	무	무	유	무	유
권수	상·하	상·하	상·하	단권	상·하	단권	상·하

표 1에서 서(序)의 유무는 설부분에는 해당 내용이 없고 나머지 판본들은 내용은 있으나 서(序)라는 제목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문본에는 특이하게 교정자와 출판사도 병기되어 있다.<sup>62)</sup>

經宅帝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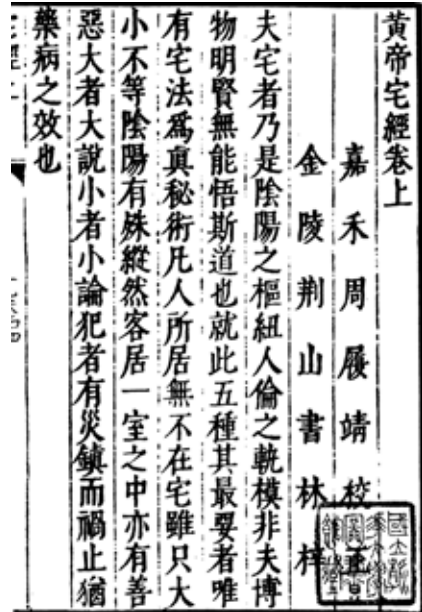


<그림 1> 『황제택경』 도장본

책의 구성 형식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상권과 하권의 체제로 구분된 판본은 도장본·이문본·진체본·사고본·학진본이고 책 속에 ‘범수택차제법’만 하나의 편명으로 되어 있다. 집성본은 상하권의 구분없이 서(序), 총론(總論), 범수택차제법, 양택도설(陽

宅圖說), 음택도설(陰宅圖說) 등의 다섯 편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서와 총론, 그리고 범수택차제법은 사고본의 상권에 해당하고,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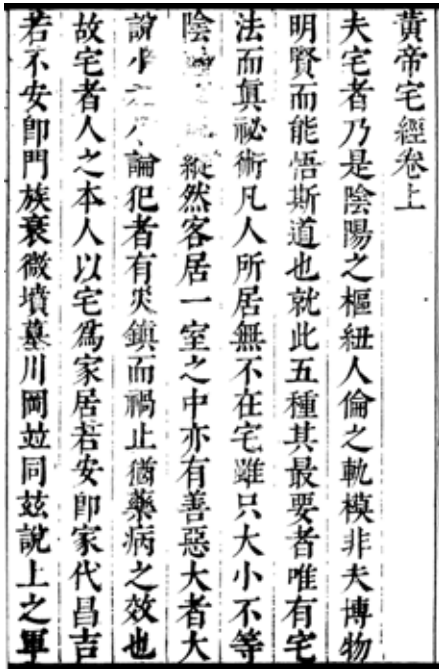
택도설, 음택도설은 하권에 해당한다. 설부분은 집성본의 서에 해당하는 부분이 생략되고 바로 총론 부분이 시작된다. 즉 『황제택경』 앞부분의 개괄적인 설명부분이 빠지고 바로 이론이 전개되는 형태이다.



<그림 2> 『황제택경』 이문본

학진본은 사고본과 그 내용이 거의 같다. 다만 제요의 첫부분 ‘신등근안(臣等謹案)’과 끝부분의 ‘건륭부터 육비지(乾隆~陸費墀)’까지 편찬 시점과 편찬자의 이름은 생략되어 있다. 사고본은 황제의 명령, 즉 칙명(勅命)으로 편찬된 흠정본(欽定本)의 성격상, 다른 판본에 비해 제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따라서 설부분에 비하면 6쪽 정도가 많다.

62) [영인문헌 2] 참조. “皇明山人周履靖校. 金陵荆山書林梓行.”(황명산인 주이정 교정, 금릉 형산서림 발행.)



<그림 3> 『황제택경』 진체본

통행본 중에서는 도장본이 가장 먼저이고, 돈황본은 송대이전의 문서로써 가장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사고본과 돈황본을 보면 그 전체적인 내용은 유사하다. 돈황본의 주석으로 있던 부분이 사고본의 내용으로 들어 있거나,<sup>63)</sup> 돈황본에 있는 부분이 사고본에는 없는 점 등은 사고본이 기존의 택경판본을 정리한 것으로 볼 수 있게 한다. 본고에서는 사고본과 돈황본을 비교하였고 7개의 통행본을 비교하였다.

대만의 풍정(馮靜)은 「황제택경고」에서 각 판본의 전승관계를 논하고 있는데, 정확한 문구는 제시하지 않고 같은 부분[相同之處]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근거로 삼았다.<sup>64)</sup> 그러나 필

자가 대조한 7개 통행본은 표 2정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대동소이하다. 물론 필자의 비교는 주65에서 설명한대로 약자, 속자, 이체자 등을 제외한 결과이기도 하다. 어쨌든 같은 부분을 찾는 것보다는 다른 부분도 같이 비교해야 더욱 정확한 전승관계나 판본의 관계성이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내용이 8자 이상인 것은 먼저 돈황본을 해석하고 다음에 사고본을 해석하여 비교하였고 8자 이하는 표 3으로 정리하였다.

① 近來學者，智迷功淺，敗失尤多，遂空守白方，餘皆廢置，豈不痛哉!

(요즘 학자들은 지식과 노력이 미천하여 실패가 더욱 많은데, 결국 헛되이 백방만을 고집하고 다른 것은 모두 폐지하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近來學者，多攻五姓八宅，黃道白方例，皆違犯太經，未免災咎。所以人犯修動，致令造者不居，却毀陰陽，而無據效，豈不痛哉!

(요즘 학자들은 대부분 ‘오성팔택’과 ‘황도백방’ 사례에 힘쓰는데, 모두 지켜야 할 큰 도리를 어긋나고 범하여, 재앙과 허물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수리나 동토법을 범하여 살지 못할 집을 짓기에 이르렀고, 게다가 음양을 훼손하여 의거할 효능마저 없애니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

② 況先賢著述，本爲救人，征應無差，實非虛說。(하물며 선현들이 책을 쓴 것은 본래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였으니, 취해서 쓰면 차질이 없으며 참으로 헛된 말이 아니다.)

況先賢垂籍，誠勸昭彰，人自冥蒙，日用而

同之處有40處，可以認爲，說郭本與集成本爲一個源流。(명각본, 도장본과 이문본이 서로 같은 곳은 25곳, 도장본과 진체본이 서로 같은 곳은 12곳임을 알게 되었다. 청각본에서는 설부분과 집성본이 서로 같은 곳이 40곳인 점을 볼 때 설부분과 집성본의 원류가 하나임을 알 수 있다.)

63) 예를 들면, 사고본에서는 “住四十五日，七十五日，往之无咎.”가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 돈황본(『敦煌寫本宅經校錄研究』, 403頁)에는 “四十五日，或七十二日，往之无咎.”가 주석으로 들어 있다.

64) 앞의 논문, 「『黃帝宅經』考」, 5頁: “可以發現，同爲明刻本，道藏本與夷門本相同之處有25處，道藏本與津逮本相同之處有12處。而在清刻本中，說郭本與集成本相

65) 판본 비교는 사고본을 기준으로 하였다. 설부분은 서(序)에 해당하는 부분이 없고 종론에 해당하는 부분

[표 2] 판본별 상이(相異)한 기록 용례<sup>6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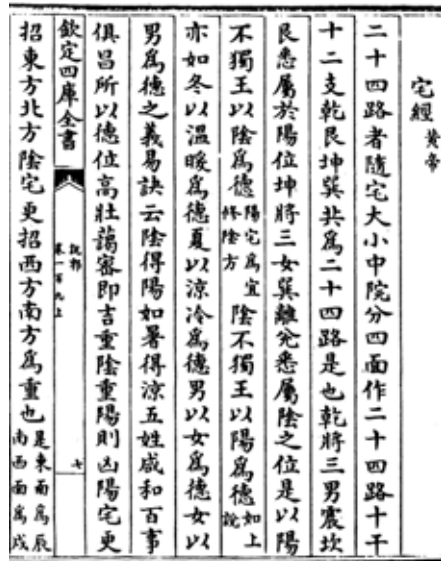
사고본	도장본	이문본	진체본	설부분	집성본	학진본
而能悟斯	無能悟斯	無能悟斯	而能悟斯	대상없음	未能悟斯	而能悟斯
而眞秘術	而眞秘術	爲眞秘術	而眞秘術	대상없음	爲眞秘術	而眞秘術
其皆大同	其皆大同	其旨大同	確認不可	대상없음	其旨大同	其皆大同
配女男之	配女男之	配男女之	確認不可	대상없음	配男女之	配女男之
溫暝爲德	溫暖爲德	溫暖爲德	溫暝爲德	溫暖爲德	溫暖爲德	溫暝爲德
凡之陽宅	凡之陽宅	凡諸陽宅	凡之陽宅	凡立陽宅	凡之陽宅	凡之陽宅
翻宅平牆	翻宅平牆	翻宅平牆	翻宅平牆	翻宅平牆	翻宅平牆	翻宅平牆
變爲妖怪	變爲妖怪	變爲妖怪	變爲妖怪	變爲妖怪	變爲妖怪	變爲妖怪
準此爲例	准此爲例	准此爲例	準此爲例	准此爲例	准此爲例	準此爲例

不識其象者。日月，乾坤，寒暑，雌雄，晝夜，陰陽等，所以包羅萬象，舉一千從運變，無形而能化物。大矣哉，陰陽之理也！(하물며 선현들은 책을 써서, 힘써 경계하고 드러내어 밝혔는데도, 사람들 스스로가 몽매하여, 날마다 쓰면서도 그 모양을 알지 못한다. 일월, 건곤, 한서, 자웅, 주야, 음양 등은 만상을 망라하는 것으로서 하나를 들면 전체가 따라 운행하고 변하여, 형체도 없이 능히 만물을 화육시킨다. 크기도 하다, 음양의 이치는!)

③故不能(爲災), 若爲災, 避之亦不妨.(그러므로 (재앙이) 될 수 없고, 재앙이 된다 해도 그것을 피하면 역시 무방하다.) 故不爲災.(고로 재앙이 되지 않는다.)

④太陰者, 生物物情之母也, 亦名考陰, 踞西南之坤位, 將三女巽, 離, 兌.(태음은 만물을 낳고 화육하는 어머니요, 고음이라 이름하는데, 서남의 곤 위치에 있으면서 손, 이, 태의 3녀를 거느린다.)  
經之陰者, 生物物情之母也. 坤將三女巽離兌, 悉屬陰之位.(큰 도리에서 음이란 만물을 낳고 화육하는 어머니요, 곤은

만 있기 때문에 '대상없음'으로 나오는 부분이 많다. 진체본의 경우 소장한 자료의 일부가 유실되어(원문 2쪽 분량) 확인불가로 표기했다. 7개의 판본 중 한 곳만 글자가 틀리는 경우는 비교에서 제외했고 약자, 속자도 제외했으며 '牆'과 '墻'처럼 같은 의미의 이체자도 대부분 비교에서 제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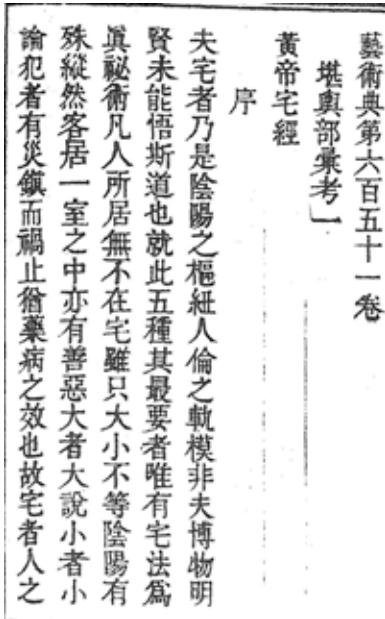


882-299

<그림 4> 『황제택경』 설부분

손, 이, 태의 3녀를 거느리니 모두 음택의 방위에 속한다.)

⑤太陽者, 生物物情之父也. 亦名考陽, 踞西北之乾位, 將三男震, 坎, 艮.(태양은 만물을 낳고 화육하는 아버지요, 고양이라 이름하는데, 서북의 건 위치에 있으면서 진, 감, 간의 3남을 거느린다.)  
陽者, 生物物情之父也. 乾將三男震坎艮, 悉屬於陽位.(양이란 만물을 낳고 화육하는 아버지요, 건은 진, 감, 간의 3남을 거느리니 모두 양택의 방위에 속한다.)



<그림 5> 『황제택경』 집성본

⑥故福德之方，勤依天德，月德修。(그러므로 복덕방은 천덕, 월덕에 의거해서 수리한다.)

故福德之方，勤依天道，天德，月德，生氣到其位即修。(고로 복덕방은 천도에 의거해 천덕, 월덕, 생기가 그 방위에 이르면 수리한다.)

[표 3] 사고본과 돈황본 비교<sup>66)</sup>

사고본	돈황본
宅法而眞秘術	宅法是真秘術
雖只大小	唯只大小
亦有善惡	猶善惡
犯者有災	犯即有災
猶藥病之效也	亦猶藥病之義也
人以宅爲家	人者以宅爲家
卽家代昌吉	卽家代昌盛
若不安卽	若不吉卽
上之軍國	上至軍國
次及州郡縣邑	次及州縣郡邑
下之村坊署柵	下至村簿保土柵
皆其例焉	其皆例焉
目見耳聞	目覽耳聞
黃帝二宅經	皇帝二宅經

地典宅經	地典宅勢
已上諸家宅經	已上諸經
亦皆自言秘妙	亦各自言秘妙
互推短長	樂推短長
今採諸秘驗	今采諸家秘驗
宅陰陽之界	定陰陽之界
並無出前二宅	並無出于陰陽二宅
此寶養生靈	此卽養生靈
以陰爲得	以陰爲德
陰不獨王	陰不獨榮
以陽爲得	以陽爲德
重陰重陽則凶	重陰重陽卽凶
令清潔闊厚	令清潔闊厚等
卽一家獲安	卽一家獲妥
三度重入陰陽	若三度重入陽入陰
謂之無魂	爲之無魂
四入謂之無魄	爲之四魄
魂魄既無	魂魄既犯
子孫絕後也	子孫絕嗣也
若一陰陽往來	若一陰一陽往來
夫辨宅者	夫辯宅者
皆取移來方位	皆取移來相數定之
不以街北街東爲陽	不以街南街東爲陽
街南街西爲陰	街南街西爲陰位
一里百里千里	一里與百千里同
十步與百步同	十步與百千步同
唯看天道天德月德	唯看天德月德
生氣到卽修之	天道到卽修之
音姓宜忌	五姓宜忌
順陰陽二氣	但隨順陰陽二氣
刑禍之方缺復荒	刑禍之方缺傷荒
福德之方連接長	福德之方連接張
刑禍之方縮復縮	刑禍之方縮傷縮
猶恐災殃枉相逐	慮猶災殃狂相逐
福德之方拓復拓	福德之方拓傷拓
牆院不完	院牆不全
宅地多屋少庭院廣	宅地多屋少五虛
宅大門小二實	大門小二實
牆院完全三實	院牆完全三實
宅水溝東南流	宅中水瀆東南流

66) 지면 관계상 『황제택경』의 처음부터 범수택차제법 시작 부분까지 비교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 사고본은 상권과 하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권은 양택이론의 원리를 중심으로 그 대강을 설명하였고, 하권은 양택과 음택의 구체적인 24 방위를 설정하여 이에 따른 응용법을 제시하였다. 이것은 사고본이 기존 『택경』들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며, 돈황본에 양택도와 음택도의 그림과 이에 따른 설명이 없는 점은 하권의 내용은 그 후에 보완된 내용임을 의미한다. 돈황본과 『황제택경』에 언급된 『택경』들도 그 점을 뒷받침한다. 돈황본과 『황제택경』 모두에서 언급된 『택경』은 23종류이다. 돈황본은 통행본에 없는 『다왕담택경(多王啖宅經)』, 『구궁택경(九宮宅經)』이 추가되어 총 25종류이다. 통행본에는 돈황본에는 없는 『다택통(多宅統)』, 『택경(宅鏡)』, 『천로택경(天老宅經)』, 『사취택경(司最宅經)』, 『자하금문택경(子夏金門宅經)』, 『조담택경(刁曇宅經)』이 추가되어 총 29종류이다. 이것은 어떤 『택경』은 전해오던 중 도태되고, 어떤 『택경』은 시대의 발전에 따라 점점 책으로 엮여져 전해왔음을 나타낸다. 또 이상의 여러 『택경』이 거론된 것으로 보아 비록 그 대부분이 역사에는 전하지 않지만, 민간 속에 존재하여 일반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위의 상황을 볼 때 돈황본이나 통행본보다 이전에 나온 『택경』들이 있었지만, 시대의 흐름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망실되거나 존속되었고, 『황제택경』의 판본을 비교해 보면 하나의 저본을 기초로 하여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이론이 더욱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음양오행 사상, 방위관, 신살길흉론, 택일과 같은 과거의 오랜 경험이 『황제택경』의 바탕인 점은 『황제택경』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전통 사상을 양택론으로 정형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6> 『황제택경』 사고본

## 6. 『황제택경』의 이론과 배경사상

### 6-1. 음양오행의 양택론

『황제택경』에서는 양택을 24로 즉 24방위로 구분하여 길흉을 살피고 따지는데 8괘의 좌향을 기준으로 모든 양택을 다시 양택(陽宅)과 음택(陰宅)으로 구분하였다. 양택과 음택을 구분하는 기준 방위는 해(亥)방과 사(巳)방이다. 해방과 사방은 1년 가운데 4월과 10월이고 절기로는 입동과 입하에 해당하며 음기와 양기가 교차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황제택경』의 음택과 양택의 구분이 1년 중 음양의 기가 교차되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것은 음양의 기의 성쇠(盛衰)를 반영한 인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사(人事)에 있어서 음양오행의 기의 변화와 팔괘에 따라 시기를 중시한 것은 한대(漢代)에 이미 구체화된 내용이었다. 『예기·월령』에 의하면 사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천자는 의례를 행하였고, 토목 공사나 군대의 이동



에도 정확한 시점을 중시하였다. 만약 그것을 어기면 음양의 질서를 무너뜨려 불행과 재앙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음양오행의 기, 복서(卜筮: 고대 중국에서 주로 행해졌던 점법), 그리고 괘상(卦象)의 길흉을 판단하여 인사를 행하였고, 중요한 행사는 택일의 과정을 거쳐 시행되었으며 성곽의 축조와 보수도 시기를 지켜서 실행하였다.<sup>67)</sup>

『황제택경』에서도 『예기·월령』에서 강조된 음양의 기, 복서, 그리고 괘상의 길흉을 모두 중시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거처는 음기와 양기의 변화 시점을 잘 살펴 두 기운의 조화를 모색하고 그것을 통해 인사의 길함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황제택경』에서는 가옥의 축조와 수리에 마땅한 특정한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특정한 날, 즉 길일을 택하여 인사를 행하는 것은 선택(選擇)의 방식인데, 그 원류는 상대(商代)의 복택에서 찾을 수 있다. 갑골문에는 거주지 축조일의 길흉을 상제에게 묻는 내용이 있으며 주초에 주공(周公)은 새로운 도읍지를 물색할 때 낙읍(洛邑)의 적합성 여부를 복택에 의거하여 결정하였다.<sup>68)</sup> 복택의 습속은 오행론과 접목되어 점차 구체화 된다.

『황제택경』의 양택축조일은 오행론에 입각하여 제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봄에는 목이 왕성한 계절이니 정월, 2월, 3월에 동쪽은 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여름과 가을, 겨울의 세 계절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려서 하라는 식이다. 또 1년 12개월의 수리와 축조는 생기와 사기가 드는 방위를 가려서 해야

하는데, 생기와 사기는 각각 오행으로 대칭되는 방위이다.

## 6-2. 황로사상과 도가사상

역사적으로 다양한 『택경』이 있지만 황제의 명칭을 거론한 것은 『송사·예문지』의 『황제팔택경』이 처음이다. 황제를 중시하는 것은 황로학파로 이들은 전국시대에 흥기하였고, 황로사상은 자연주의 천도관(天道觀)과 기의 생사관(生死觀)으로 요약된다.

황로사상은 『황제사경(黃帝四經)』<sup>69)</sup>에서 분명하다. 『황제사경·칭(黃帝四經·稱)』에서는 “과도한 궁실은 상제가 꺼리는 것이니, 지어도 거처하지 못하고, 거처해도 오래 못 산다.” 라고 하여 집을 지을 때 절제와 검소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황제택경』도 이와 유사한 생각을 보이는데, 식구 수에 비해 집이 너무 크면 좋지 않고 너무 넓은 정원도 좋지 않다고 본다. 이런 사고는 황제택경의 본문 중에 오실오허(五實五虛)<sup>70)</sup>로 드러난다.

69) 『황제사경』은 1973년 호남성 장사시(長沙市) 마왕퇴(馬王堆) 한묘(漢墓)에서 출토된 백서(帛書)로 발굴 당시 백서노자 을본(帛書老子乙本) 앞에 붙어있었다. 후에 이것이 『한서·예문지』에 나오지만 실전되었던 『황제사경』으로 인정받게 된다. 『황제사경』은 황로학과 초기의 저서로 노자의 ‘도’ 관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 자연을 일정한 범칙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황제사경』은 천지인(天地人) 3가지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우주나 사회는 객관적인 법칙이나 규칙에 의해 지배되며 인간도 그 하나라고 본다. 이 백서는 도가학설이 노자를 거쳐 황로학파(黃老學派)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선진시대 제자(諸子)와 직·간접적 영향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황로학과, 직학파(稷下學派)와 법가(法家)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 『황제사경』에서 사경이란 경법(經法)·십대경(十大經)·칭(稱)·도원(道原)을 말한다.

70) 앞의 책, 『宅經』, 4頁: “宅有五虛, 令人貧耗, 五實, 令人富貴. 宅大人少, 一虛, 宅門大內小, 二虛, 牆院不完, 三虛, 井竈不處, 四虛, 宅地多屋少庭院廣, 五虛. 宅小人多, 一實, 宅大門小, 二實, 牆院完全, 三實, 宅小六畜多, 四實, 宅水溝東南流, 五實(집이 오히려 사람을 빈천하게 하고, 오실이면 사람을 부귀하게 한다. 집은 큰데 사람이 적으면 일허요, 집 내문은 큰데 안은 좁으면 이허요, 담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삼허요, 우물과 부엌이

67) 南晚星 譯, 『禮記』(中), 서울, 평범사, 11-80쪽, 1979.

68) 『尙書』 「周書」 「洛誥」: “召公既相宅, 周公往營成周, 使來告卜.”  
[漢] 孔安國 傳, [唐] 孔穎達 疏, 李學勤 主編, 『尙書正義』(十三經注疏整理本),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476-478頁, 2000.

도가 사상과 위진시대 대표적인 현학자로 유명한 위나라 혜강(嵇康)은 그의 『난택무길흉섭생론(難宅無吉凶攝生論)』에서 다음과 같은 양택관을 보이고 있다.

집(宅)은 선악이 있으니, 사는 사람도 그것에 따른다. 마땅히 길할 사람도 흉택에서는 재앙을 받고, 요망무도한 사람도 길한 곳에 살면 복을 얻는 것이 길흉의 이치이니, 모두 집에 따른 것이다. …… 집이 길하다고 모두 복이 오는 것은 아니다. 군자가 현명하다면 또 그 사는 곳을 점쳐 순리에 따라 적덕을 행해야 원래의 길함을 향유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착한 농부가 기술이 있고, 또 비옥한 토지를 가려 부지런히 경작해야 창고가 가득하게 되는 보답이 생기는 것과 같다(기)

이것은 사람의 운명이 길하거나 흉할지라도 어떤 양택에 거처하느냐에 따라 그 길흉이 달라진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즉 양택의 영향이 운명의 영향에 앞선다는 설명이다. 나아가 양택이 길하다고 해서 저절로 복록이 이르는 것이 아니라 양택의 길흉을 판별하는 노력과 적덕을 쌓는 행위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복록이 이르는 이치를 역설하였다. 혜강이 생존했던 위진남북조의 이와 같은 관념 또한 『황제택경』에서도 유사하다. 책에서는 “사람은 집으로 인해 입신하고, 집은 사람으로 인해 존재하

제 위치에 있지 않으면 사허요, 집터가 큰 데 집은 작고 정원이 넓으면 오히려이다. 집은 작는데 사람 수가 많으면 일설이요, 집은 크고 대문이 작으면 이설이요, 담장이 제대로 되었으면 삼설이요, 집은 작는데 가축이 많으면 사설이요, 집 도량이 동남으로 흐르면 오설이다.”라고 하였다.)”

71) 『古今圖書集成術數總綱·堪輿(下)』 「堪輿藝文」 「難宅無吉凶攝生論」: “此爲宅自有善惡, 而居者從之, 則當吉之人, 受災于凶宅, 妖逆無道, 獲福于吉居, 爾爲吉凶之致, 唯宅而已. …… 不謂吉宅能獨成福, 但謂君子既有賢才, 又卜其居, 復順積德. 乃享元吉. 猶夫良農既懷善藝, 又擇沃土, 復加耘籽, 乃有盈倉之報耳.”

鄭同 点校, 『古今圖書集成術數總綱』, 華齡出版社, 北京, 734頁, 2008.

니, 사람과 집이 서로 도우면 천지를 감통시킨다. 그러므로 운명만을 신뢰할 수는 없다.”라고 하였다.<sup>72)</sup> 이와 같이 『황제사경』의 인식과 위진남북조 시기에도 중시되던 양택의 영향력은 『황제택경』에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7. 결론

『황제택경』은 양택 풍수지리 이론에 입각한 주택의 축조와 수리에 대한 오랜 이론을 담고 있다. 『황제택경』은 주택의 ‘가상(家相)’을 판단한 것이 주요 내용인데, 방향과 길일(吉日)을 중시하는 양택관을 계승하고 심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황제택경』에는 풍수지리 방법론의 3가 중에서 이기론과 선택론이 혼재되어 있다.

『택경(宅經)』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것은 수대(隋代)의 소길에 관한 기록이 처음이다. 『북사·소길전』에는 『택경팔권』이 기록되어 있어 소길이 『택경(宅經)』을 저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오성택경』 20권을 통해 당시에 이미 양택풍수지리학 이론서가 등장했음을 알 수 있다.

당대에 이르러 여제는 당태종의 명을 받들어 음양서와 풍수지리서를 정리했는데, 이름만 전해지는 『택경』들이 이때 여제에 의해 정리되어 『황제택경』으로 통합된 것으로 보인다. 당대에는 풍수지리법이 민간에 전파되었고 송대에 이르면 문화와 인쇄술의 발전으로 풍수서적들이 대량으로 출판되어 풍수지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 결과 송대에는 다양한 양택서가 기록에 보인다.

전해지는 판본 중, 가장 앞선 돈황본의 사본

72) 앞의 책, 『택경』, 5頁: “人因宅而立, 宅因人得存, 人宅相扶, 感通天地, 故不可獨信命也.”

년대는 1002년 이전이다. 따라서 그것과 유사한 내용의 사고본은 늦어도 만당오대(晚唐五代) 시기에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 또 택경의 저자로 나오는 사마천사, 이순풍, 여제의 공통점을 보면 당대(唐代)에 걸친 인물로 이를 통해 『황제택경』이 당대에 형성된 문헌임을 알 수 있다.

현존하는 『황제택경』의 판본은 ①정통도장본 ②이문광독본 ③진체비서본④설부분 ⑤고급도서집성본 ⑥문연각사고전서본 ⑦학진토원본 ⑧돈황본 등의 8가지이다. 통행본인 7가지는 대동소이하지만 돈황본은 통행본 7가지와 자구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

『황제택경』은 음양오행론과 황로학과의 『황제사경(黃帝四經)』 그리고 도가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의 음양오행론과 방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택서의 내용을 선별하고 발전시켜 양택의 이론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황제택경』은 사람과 주택의 밀접한 상호 영향과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동양의 고대 건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황제택경』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역사상 많은 양택서가 나타났지만 그 근본은 『황제택경』의 이론들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황제택경』에 대한 연구는 동양의 고대 건축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紀昀 等纂, 『宅經』(『景印文淵閣四庫全書』 808冊),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1986.
2. 謝路軍主編, 鄭同點校, 『四庫全書 術數三命通會』, 華齡出版社, 北京, 2006.
3. 劉安 編著, 高誘 注, 『淮南子』, 世界書局, 臺北, 1985.

4. 王其亨 主編, 『風水理論研究』, 天津大學出版社, 天津, 2004.
5. 劉昫 撰, 『舊唐書』, 中華書局, 上海, 1975.
6. 李延壽撰, 『北史』, 中華書局, 北京, 1974.
7. 魏徵 等撰, 『隋書』, 中華書局, 北京, 1982.
8. 脫脫 等撰, 『宋史』, 中華書局, 北京, 1977.
9. 紀昀 總纂, 『四庫全書總目提要』, 河北人民出版社, 石家莊, 2000.
10. 李約瑟, 『中國科學技術史』, 上海古籍出版社, 上海, 1990.
11. 李少君 編著, 『圖解黃帝宅經』, 陝西師範大學出版社, 西安, 2008.
12. 王玉德, 『神秘的風水』, 廣西人民出版社, 南寧, 2003.
13. 王玉德, 『尋龍點穴』, 中國電影出版社, 北京, 2006.
14. 馮靜, 『黃帝宅經』考, 杭州, 浙江大學碩士學位論文, 2004.
15. 金身佳 編著, 『敦煌寫本宅經葬書校注』, 民族出版社, 北京, 2007.
16. 陳于柱, 『敦煌寫本宅經校錄研究』, 民族出版社, 北京, 2007.
17. 南晚星 譯, 『禮記』, 평범사, 서울, 1979.
18. 孔安國 傳, 孔穎達 疏, 李學勤 主編, 『尚書正義』, 北京大學出版社, 北京, 2000.
19. 鄭同 點校, 『古今圖書集成術數總刊』, 華齡出版社, 北京, 2008.
20. 趙建雄 主編, 『宅經校譯』, 雲龍出版社, 中和, 1996.

집수(2009. 10. 15)

수정(1차:2009. 12. 1, 2차:2009. 12. 16)

게재확정(2009. 12. 23)

# A philological Study on Huangdi-zhaijing(黃帝宅經)

Chang, Sung Kyu

(A candidate for the Ph.D., Kongju Univ.)

## Abstract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philological character of Huangdizhaijing(黃帝宅經). Huangdizhaijing is a first stage scriptures of YangzhaiFengshui(陽宅風水) which is the firstly mentioned book in Sikuquanshu(四庫全書). Huangdizhaijing is an obligatory book to read to understand the palace of ancient dynasty as well as general housing of people.

Huangdizhaijing measured housing conditions divided into Yangzhai(陽宅) and Yinzhai(陰宅). The contents succeeded traditional Yangzhaiguan(陽宅觀) which values direction(方向) and Jiri(吉日). That is, classifying Yangzhai into 24 directions based on Qi of YinYang(陰陽之氣) theory, general contents of Huangdizhaijing explains regulatory rules and propitious day in accordance with the Yangzhai mathematical principles and archaeology through Jixiongshenshalun(吉凶神煞論). Huangdizhaijing includes the kernel of understanding the chinese architect system and housing culture because it describes close reciprocal influences between man and house.

It seems that the author of Huangdizhaijing is not the emperor but he was represented by descendants who systemized the idea of Huangdizhaijing in Yangzhai shu(陽宅書). Being there many of documents presented by emperor like Huangdineijing(黃帝內徑), It is counted that the reason of the representing emperor is to show off its origin has long and authoritative history.

It seems that the preserved period of writing Huangdizhaijing is Tang(唐) dynasty, but counting that various Yangzhai shu prevailed, Huangdizhaijing's contents has much in common with Dunhuangben(敦煌本), and it valued Menfazhidu(門閥制度) of Weijinnanbeichao(魏晉南北朝) dynasty, the many of the contents of Huangdizhaijing should be formed before Tang dynasty.

The exiting editions of Huangdizhaijing could be divided into generally 8 kinds:① Zhengtongdaocangben(正統道藏本) ②Yimenguangduben(夷門廣牘本) ③Jindaimishuben(津逮秘書本) ④Shuofuben(說郛本) ⑤Gujintushujichengben(古今圖書集成本) ⑥ Sikuquanshuben(四庫全書本) ⑦Xuejintaoyuanben(學津討原本) ⑧Dunhuangben(敦煌本)

---

Keywords : Fengshui, Huangdizhaijing, Yangzhai, Documentary records.

---